

썰렁한 금요일 캠퍼스, 강의실도 연구실도 ‘텅텅’

강의개설 학생 외면... 연구실 지키는 교수 소수뿐

“금요일에는 전공수업이 없어서 교수님들이 거의 안 나오세요. 금요일 수업은 학생들도 싫어하잖아요.” 금요일에 캠퍼스 공동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학생은 물론 교수들까지 금요일에는 대학을 떠나고 있다. 국립대 교수는 교육공무원으로 공식적인 출장이나 세미나 등의 이유가 없으면 대학에 나와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지난 18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전체 학과를 대상으로 교수 연구실을 직접 찾아가 보니, 학과마다 평균 한 두명 정도만 연구실을 지키고 있었다.

학과 조교들을 통해 교수 출퇴근 상황을 확인한 결과, 세미나와 학회, 출장 등의 구체적 사유를 밝힌 경우도 있지만, 일부 학과에서는 “바쁘셔서”라고 말하는 등 뚜렷한 이유를 모르고 있었다. 경상대학 모 학과의 조교는 “금요일에는 교수님들이 거의 연구실에 안계신다”면서 “다른 일을 보신다”고 애둘러 말했다.

상담이나 질문을 하러 연구실을 찾는 학생들은 교수들이 금요일에 자리를 비워서 헛걸음을 하기도 한다. 생물학과의 한 학생은 “금요일에 모 교수님께 상담받고 싶은게 있어서 찾았지만 자리에 안 계셨다”며 “금요일도 학교에 나오는 날이니까 당연히 게실 줄 알았는데 하루종일 자리를 비워뒀서 당황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도 금요일은 공휴일 같은 인식이 팽배해져 있다. 금요일 수업을 일부러 편성하지 않은 ‘주4파’ 학생들도 상당수 있다. ‘주4파’인 경영정보학과와 한 학생은 “금요일에는 학과 행사가 많아서 일부러 시간표에 넣지 않았다”며 “수업을 듣지 않는 대신 밀린 과제를 하거나 술을 마시고 놀러가는 편”이라고 말했다.

금요일에 엄연히 수업이 있지만 학과행사나 MT도 대부분 금요일에 진행된다. MT를 가는 58개 학과와 전 공 중 60%에 달하는 35개 학과가 모두 금요일에 MT를 계획했다. 이에 따라 금요일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수업이 취소되거나 분위기가 흐트러져 피해를 보고 있다. 물리학과와 한 학생은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수업을 받으려 학교에 나왔는데 MT로 수업이 취소돼 기본이 나뒀다”며 “MT는 주말에 가도 되는데 굳이 금요일에 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요일 개설된 강의수도 현저히 낮다. 이라닝과 실습과목을 제외한 전체 수업 중 금요일 수업은 약 13%에 불과하다. 학사 규정 제14조 1항에는 ‘수업시간은 주중 균형있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학생과 교수 모두 금요일 수업을 기피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개설되

지 않은 것이다. 이는 과거의 대학생들이 대학 중심으로 활동을 하던 것과는 다르게 최근에는 아르바이트나 자원봉사 등 외부 활동이 잦아진 탓이기도 하다.

김명숙(학사과) 수업팀장은 “학생들이 금요일 수업을 기피하고 교수들도 세미나 등으로 금요일 강의 개설을 원치 않아 금요일 수업편성이 적은 편”이라며 “교양과목은 요일별로 균등하게 개설해도 금요일을 원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서 대부분 폐강된다”고 말했다.

수업이 금요일을 제외한 4일에 몰려있어 수업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생명대학의 한 교수는 “월요일부터 목요일에 대부분 수업편성이 이뤄진 만큼 학생들은 졸리고 집중이 잘 안될 것”이라며 “대학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금요일이 노는 날이라는 분위기가 대학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이영호(중어중문) 교수는 “대학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학생과 교수의 본분인데 ‘놀자’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매일 해도 부족한 전공공부를 주 4일만 해서 어떻게 실력이 쌓이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금요일 수업을 하는 교수에게 업적평가나 인센티브를 주는 등 금요일 수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희 기자



학생회관 1층 로비에 일본 대지진 참사에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설치됐다.

일자리 박람회 23일 국제교류회관서 개최

2011 제주대학교 광역경제권 일자리 박람회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 제주대학교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일자리 박람회에는 제주 물산업 관련 10개 기업과 관광·레저산업 관련 15개 기업 등 25개 업체가 100여명의 신입사원을 선발한다. 참가 대상은 제주대 출신 미취업 졸업생과 졸업예정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관광·레저 선도산업 인재양성센터와 제주물산업 인재양성센터가 운영하는 산학협력데이와 연계해 진행된다.

취업전략본부 이창수 실무관은 “이번 일자리 박람회에는 제주특별

자치도개발공사와 제주관광공사 등 제주지역 주요 기업들이 참가한다”며 “공격처리가 가능하니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대의원회, 29일 총회

육하원칙 총대위원회(회장 김민석)는 오는 29일 오후 4시 법정대학 중강당에서 전 학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11학년도 상반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회칙 개정과 함께 투명한 졸업앨범 제작을 위한 입찰 과정 공개, 학생회비 예산분배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일본 피해복구 지원 모금운동 전개

교류대학·교포에 허향진 총장 위로전문

제주대가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 참사와 관련,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허향진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은 오는 25일까지 성금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총학생회(회장 현운탁)는 지난 16일 학생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지난 17일부터 각 단과대학과 학생회관에서 성금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학생회관 1층 로비에 대지진 참사에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허향진 총장은 일본 관동제주도민협회(회장 고상홍)와 일본 내 교류대학 총장에게도 위로의 전문을 보냈다. 허 총장은 위로전문에서 “제주대학교 교직원들은 귀국의 큰 피해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며, 교류대학 총장님을 비롯한 일본 국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5일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일본인 교환학생과 유학생, 연수생 등을 초청해 위로하고, 이들의 가족·친지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교류수학을 계획했던 학생들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일본은 새 학기가 4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교환학생들은 출국

준비를 다 마친 상태이다.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대재앙 앞에 일본교류 학생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특히 계속되는 여진과 방사능 유출 여파로 학부모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의 걱정과 불안은 커지고 있다.

문지현씨(중어중문 3)는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일본교류수학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다”며 “수개월 전부터 준비해온 교류수학이 차질이 빚어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제주대는 현재 일본 28개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가운데 이번 1학기에는 나가사키대학, 큐슈대학, 류큐대학, 사가대학, 소가대학, 메지로 대학 등 6개 대학에 14명의 교환학생 교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국제교류센터는 이번 교류수학 예정자 학교가 지진의 직접적 피해가 없는 일본 남서부와 도쿄 등지에 위치한 학교이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교류수학 여부를 본인이 재결정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국제교류센터 박미혜 실무관은 “교환학생을 포기하거나 유예하는 학생의 경우 수강신청을 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 본인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오는 24일 공청회 개최

제주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자연과학대학 1호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2011~2020 우리 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겸해 진행한다. 현재 우리대학 2011~2020 발전계획 수립 연구는 대학교육협의회가 담당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개식 △총장님

인사 △경과보고 △2011~2020 발전계획안 제언 설명 △질의 응답 △폐회 순으로 진행된다. 교수, 직원, 학생 등 학내구성원이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다.

사 령

김은실(정치외교 2)
장호주(철학 1)

3월 23일자로
수습기자로 임명함

제주 MICE 정보 원스탑 서비스 시스템
http://www.jejumice.or.kr / 콜센터(영어, 중국어, 일본어)운영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_ 하하.. 예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열릴 회의장소에 대해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흠...
_ 제주에서 할까 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있나요?
네! 회의관련은 제주컨벤션뷰로가 전문가입니다.

“아! 그럼 이번회의는
제주컨벤션뷰로와 상의합시다!”

MICE 유치 및 마케팅 지원

- ▶ MICE 유치절차 안내 및 자문
- ▶ 유치 지원금 제공
- ▶ 유치 제안서 작성
- ▶ 공동 유치 마케팅 활동
- ▶ 제주 MICE시설 답사지원

MICE 개최 및 기타지원

- ▶ 개최 지원금 제공
- ▶ 회의시설, MICE 관련업체 정보제공
- ▶ 홍보물 제공 등

아름다운섬, 제주에서의 즐거운 컨벤션! 제주컨벤션뷰로 **Jeju CVB** 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690-7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 23 (연동 313-80) 제주웰컴센터 2층
대표전화 : (064)739-1801~4 / MICE 사업팀 : (064)739-2206~8, FAX : (064)739-1805

사설

일본 대지진이 주는 메시지

지구의 지도를 변화시킬 정도로 위력이 큰 지진과 쓰나미, 지속되는 여진으로 이웃나라 일본이 위기를 겪고 있다. 거대한 쓰나미의 파괴력은 자연의 위력과 인류 문명의 한계를 자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설상가상으로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면서 방사능 공포까지 더하여 일본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현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 파악된 사망자와 실종자는 2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세계가 위로를 보내며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일본 대지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가깝게는 일본이라는 이웃의 불행에 대한 예의에서부터, 일본인들의 시민의식, 재앙에 대한 위기대처능력에서부터 크게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 인류애와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도 성찰하게 해준다.

이웃나라의 아픔을 함께하고, 위로하고 돕는 마음은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성의 가장 큰 강점이었다. 일본인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던 한류스타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도움을 주는 모습은 아름다우면서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 지진과 관련하여 국내 언론사들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인류애를 강조하며 일본을 돕자는 사설을 쓰고 있다. “말 한마디도 일본 국민 상처 어루만지는 마음으로”를 강조하며, “일본에 닥친 재앙과 일본 국민이 당한 현재의 사태를 우리 경제의 손익(損益) 차원에서 다루는 듯한 표현도 삼가는 게 옳다”고 말했다. 고통을 당하는 이웃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인 것이다.

일본인들의 시민의식은 세계인들의 뇌리에 깊이 인식되고 있다. 일본은 어릴 때부터 메이와쿠(迷惑)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그것은 ‘남에게 끼치는 폐’를 뜻하는 일본말인데, 일본의 가정·학교 교육과 사회 윤리의 핵심이 바로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마

라’는 것이다. 대피소에서 우동 10그릇을 놓고 50명이 서로 양보하고, 원망하거나 항의하기보다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처하며, 남을 먼저 생각하여 “내가 올면 더 큰 피해자에게 폐가 된다”며 감정을 자제하는 모습은 인상적이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본의 시민의식은 인류의 정신이 진화한다는 사실을 보여 줬다”고 전했다.

더불어 원전 방사는 누출에 대하여 전 세계가 위기의식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방사능은 침착한 일본인들마저 혼란스럽게 할 정도로 무서운 재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지진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재난대처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보지 않을 수 없다. 자연이 얼마나 무서운지 절감하면서 우리나라에 지진 혹은 쓰나미가 닥치게 될 경우 그에 대비할 대처 매뉴얼을 정부 차원에서 잘 점검해야 할 것이다.

어느 나라도 어떤 문명도 위기를 겪으면서 발전하고 성장한다. 그 발전이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으며, 정신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인류공동체란 말은 헛말이 아니며, 인류에는 이러한 위기의 시점에 필요한 덕목이다.

고은 시인은 “인간의 안락이란 얼마나 불운인가/ 인간의 문명이란 얼마나 무명인가/ 인간의 장소란 얼마나 허망한가”라고 한탄하면서, “오늘의 일본은/ 다시 내일의 일본이다/ 내 이웃 일본의 고통이며 고통 그 다음이며/ 오늘의 일본으로/ 이후의 일본 반드시 세워지이다”라고 하였다. “일본에의 예의”라는 제하의 시이다. 현재 필요한 것은 바로 일본의 재난에 대하여 이웃 국가로서 최대한의 예의를 지키며, 고통을 함께하고, 위로하고, 도와주어 일본이 다시 일어설도록 격려해주는 일이다.

“여학생 위한 체육관내 샤워시설 만들자”

근본적 해결은 체육관 신축

체육관의 열악한 샤워시설로 인해 여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불편의 원인은 바로 체육관에 여학생 샤워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여학생들이 체육수업을 마친 후 땀에 젖은 채로 다음 수업을 받으러 가는 일이 발생한다. 여학생탈의실 역시 낙후된 설비와 불결한 정결상태 때문에 여학생들은 실제로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다.

체육학부의 한 여학생은 “남학생 샤워실은 있고 여학생 샤워실이 없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며 “차라리 교수샤워실과 남학생 샤워실을 통합해서 여학생샤워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체육학부 여학생은 “지금 은 날씨가 덥지 않아서 걱정이 덜하지만 날씨가 더워지면 땀이 많이 난다”며 불만을 토로 했다.

이에 대해 체육진흥센터 임관철씨 체육학과 고태욱씨(체육 1)는 “남자만 체육관을 쓰는 것도 아닌데 여

학생 샤워실도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남학생으로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샤워실 문제의 근본원인은 매해 반복해서 제기되는 낙후된 체육관 시설에 원인이 있다.

노동진 강사(체육학부)는 “여학생 샤워실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체육관 시설 자체가 다른 학교에 비해 매우 노후화 되었다”며 “임시로라도 칸막이를 설치해 탈의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총여학생회장 양혜경씨(가정관리, 4)도 교내 절반을 차지하는 여학생들의 샤워시설이 없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하며 “나 역시 여학생의 한 사람으로서 샤워시설이 하루 빨리 설치됐으면 좋겠다”며 “우리 총여학생회에서 도 따로 조사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체육진흥센터 임관철씨 체육학과 고태욱씨(체육 1)는 “남자만 체육관을 쓰는 것도 아닌데 여



체육관 여자탈의실 내부모습. 여자탈의실이라는 뜻말이 붙어있긴 하지만 전에는 남자 화장실이었다.

시로 그 공간을 여자 탈의실로 개조했다”며 “여학생 샤워실 미비 문제도 있지만 더 넓게 보면 체육관시설 전체의 노후화가 핵심 문제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 예산문제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기대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태”라며 “등록금 동결과 다른 사업들의 확장으로 인해 체육시설

관련 예산을 끌어오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여학생 샤워시설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필요한 경우 여학생들이 체육관 안에 있는 체육진흥센터를 찾아와 얘기를 한다면 교수샤워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수습기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 선정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올해 여대생 커리어개발지원사업 대상센터로 선정됐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센터장 오승은 교수)는 지난해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정센터로 선정된데 이어 올해는 여대생 커리어개발지원사업 대상센터로 선정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

이에 따라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국비 지원을 통해 올해 Jeju Ellis Program(1대 1 상담컨설팅), 파트너와 함께하는 성공 커리어 & 라이프, 여대생 멘토링 프로그램, 여대생과 함께하는 여대생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여대생의 맞춤형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전 생애적 차원에서 커리어 설계를 지원한다.

한편 여성가족부와 교과부의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은 전국 31개 지정

대학 가운데 제주대 등 25개 센터가 선정됐다.

23일 여행가 조명화 특강

제주대 문화광장

제주대 문화광장이 오는 23일 오후 2시 아라뽀스홀에서 여행가 조명화씨를 초청해 강연을 연다.

조명화씨는 ‘캠퍼스 밖으로 행군하라’를 주제로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닌, 직접 발로 뛰고 머리를 쓰고 숨겨진 능력을 끌어올리며 세계를 배우고 자신을 성장시킨 ‘빠급여행’의 공모전 여행 이야기를 풀어놓을 예정이다.



지난 10일 EMLSI트랙이 제주대 학생에게 2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주)EMLSI, 2000만원 장학금 전달

공학교육혁신센터사업 EMLSI트랙이 제주대 학생을 위해 2000만 원을 내놓았다.

공학교육혁신센터사업인 EMLSI트랙은 지난 10일 본관 회의실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우수 학생을 장려하기 위해 (주)EMLSI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전자공학과 6명과 통신공학과 4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2000만원이 전달됐다.

공학교육혁신센터사업 EMLSI트랙은 2005년 10월부터 2007년 8월까지 ‘T-SoC산업을 위한 공학교육과정 개편 지원사업’의 연장으로 2007년 6월부터 현재까지 제주지역에 소재한 (주)EMLSI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주)EMLSI는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꾸준히 2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세계환경과 섬 하계대학 수강생 모집

세계환경과섬연구소(소장 고창훈 행정학과 교수)와 세계섬학회가 제5차 세계환경과 섬 하계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하계대학에서는 ‘세계환경과 섬과 평화’를 주제로 제주대 교수들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등 40여개 국가의 교수와 전문가들이 강연을 연다.

하계대학은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20일까지 운영된다. 수업은 교양동에서 진행하며 6학점을 인정해준

다.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지만 신청 제한은 없기 때문에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등록비는 ‘두 코스, 글로벌 컨퍼런스, 문화체험 참가비’로 160만원이지만 재학생은 다음달 8일까지 등록하면 75만원으로 할인된다. 수강신청은 다음달 3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 후 peaceislandasia@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세계환경과섬연구소(754-2318) 장호주 수습기자

산업대학원 고급환경전문가과정 개강

산업대학원(원장 안기중)이 제10기 고급환경전문가과정 개강식을 지난 11일 미래컨벤션센터에서 열었다.

고급환경전문가 교육은 11일부터 2012년 2월까지 1년간의 교육과정으로 주 1회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3시간 수업을 진행, 연간 30강좌를 이수한다.

대학교수, 환경전문가 등을 초청

해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을 병행해 환경정책, 환경기술, 생태와 환경, 환경과 물 자원, 환경과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제주의 지질 등 전반적인 환경 분야를 다루게 된다.

이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과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증이 주어진다. 지금까지 고급환경전문가 과정 수료자는 621명에 이르고 있다.

제주대병원 소식

오는 24일 ‘어깨관절의 날’ 행사

제주대병원(병원장 강성하)은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제주대병원 2층 대강당에서 ‘어깨관절의 날’ 기념 건강 강좌를 개최한다.

대한 견·주관절 학회의 ‘어깨 관절의 날’ 행사 중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제주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최성욱 교수가 만성 어깨 통증 질환과 어깨 힘줄(회전근 개)파열의 치료법에 대해 강의하고,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번 건강강좌는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강좌 후 정형외과 교수들이 도민 대상으로 무료 진료 상담과 어깨 운동 기구를 선물할 예정이다.

의료질 향상 위한 QI사례발표회

지난 18일 병원 2층 대강당에서 2010년 한 해 동안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결실을 모아 제9회 QI사례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례발표회에는 사전 예선을 거친 총 9개부서가 본선에 참가했으며, 간호부의 ‘EMR 간호기록 질 향상’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외래팀의 ‘외래간호직원의 업무스트레스 감소와 직무만족도를 높이자’와 41, 53병동의 ‘환자 안전을 위해 낙상을 줄이자’가 각각 선정됐으며 나머지 6개팀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제 31회 백록문학상 현상 공모 실시 안내

언론미디어센터에서 제주대신문 창간 57주년을 맞이하여 제 31회 백록문학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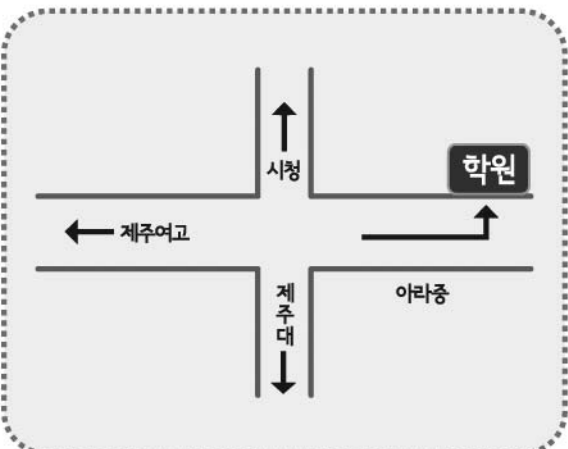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2. 응모분야 : 시(1인 5편 이상) 또는 소설(1인 1편)
3. 접수마감일시 : 2011년 5월16일(월) 18:00까지
4. 접수장소 :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백록문학상 응모시 원본 파일을 담은 CD와 출력물을 동시에 제출
5. 발표 : 제주대신문 854호(2011년 6월 8일 발행 예정)
6. 시상내역 : 각 부문 당선작(50만원), 가작(30만원)
*단, 작품 수·작품의 수준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시상내역은 변동 가능함.

제주대학교 언론미디어센터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주 운전면허 기능시험 자체 실시
- ▶셔틀버스 운행 : 제주대 ↔ 학원 (08:30~17:00)
- ▶매시 30분 제주대 정문앞 출발
- ▶주말교육가능
- ▶필기시험 교재 배부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 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제2도서관 리모델링 후 재개관... 912석 확보

열람실 4개와 간행물 자료실로 구성

제2도서관이 도서관으로써 본모습을 찾고 새롭게 개관했다. 제2도서관은 지난 99년 완공됐으나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위해 다른 용도로 사용돼 왔다. 그렇지만 지난해 법학전문대학원 건물이 완공되면서 제2도서관이 본래의 역할을 되찾게 된 것이다.

새롭게 문을 연 제2도서관은 보수공사비 1억1500여만원, 기자재비 1억6000여만원을 들여 열람실 중심의 도서관으로 변화했다.

제2도서관은 연면적 3364㎡의 규모에 3층으로 구성돼 있다. 1층은 제3열람실과 제4열람실, 2층은 제5열람실과 제6열람실, 3층은 간행물 자료실을 갖추고 있다.

이번 개관으로 제주대 도서관 좌석수가 912석이 늘어 총 2058석이 됐다.

열람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운영되며, 모든 조명이 LED조명으로 이뤄져 있다. 칸막이는 제3열람실과 제5열람실은 설치됐지만 제4열람실과 제6열람실은 설치하지 않았다.

강권의 자료운영팀장은 “중앙도서관은 칸막이가 낮아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웠다”며 “특히 제3열람실은 학생들이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60cm 높이로 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LED조명을 설치해 효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빛이 부드럽워 공부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답했다.

특히 이번 개관으로 정문이나 본관 주변에 위치한 단과대학 학생들이 좀 더 가깝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지난 2일 개관한 제2도서관은 총좌석수가 912석이다.

됐다.

자연대학을 다니는 김태환(수학 2)씨는 “예전에는 공부를 하려고 중앙도서관까지 가야했지만 제2도서관

이 개관하면서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게 됐다”며 “시설도 깨끗하고 좋아서 공부할 맛이 난다”고 말했다.

강보배 기자

‘서귀포시민 책임기 릴레이’ 제주대서 시작

‘나비와 함께 날아가다’ 오성찬 작가 강연

‘서귀포시민의 책임기 릴레이 행사’가 올해 처음으로 지난 16일 법경대학 행정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서귀포 출신 학생과 교직원 50여명이 릴레이 주자로 선정돼 고창후 서귀포시장에게 책을 전달받았다.

서귀포시민의 책임기위원회(위원장 김학준)가 지난해부터 전개하고 있는 이 행사는 책 한권의 감동을 도시 전체가 공유하는 독서운동이다. 책임기 릴레이는 주자로 뽑힌 서귀포시민들이 ‘One City One Book’ 선정도서를 읽고, 자신의 소중한 사람에 책을 건네는 것이다.

올해 선정된 도서는 서귀포 출신작가 오성찬씨가 나비 박사 석주명 선생의 제주도 생활을 소설화한 ‘나비와 함께 날아가다’이다.

김학준 위원장은 “한국의 최남단인 서귀포는 끝이 아닌 시작점”이라며 “제주의 심장인 제주대에서 독서 릴레이의 불꽃불을 올리면 한국 전체에 울림이 번져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오성찬 작가의 강연도 펼쳐졌다. 오 작가는 뇌종양수술로 불편해진 몸을 이끌고 강단



책임기 릴레이 행사로 서귀포 출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책을 나누주고 있다.

에 올랐지만 누구보다 열성적인 목소리로 강연해 청중들에게 감동의 박수를 받았다.

지난 10여년간 제주마을에 대한 책을 펼쳐온 오 작가는 “내 작업은 마치 나비를 잡아서 책갈피에 끼워 표본을 만들듯 마을 하나를 표본으로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며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서 제주의 마을들을 계속 책으로 묶어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고홍희 기자

제주대, 말산업 육성 나선다

제주대가 말산업 육성을 위해 두 발 뺏고 나섰다.

지난달 18일 말산업육성법이 국회로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통과된 말산업육성법에 따라 앞으로 말산업이 제주도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산업대학원에선 지난해부터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말산업학과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15억 원을 들여 전문인력 양성용 승마장을 조성하는 등 향후 특구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육과정도 강화됐다. 2011학년도 신입생들은 동물생명공학전공 및 체육학부, 마필산업연구센터와 연계해 △승마 △승용마 △승마산업 △집병관리 등 말산업 관련 R&D는 물론, 승마교육 및 승마전문가 양성교육을 받는다.

아라캠퍼스 남쪽에 위치한 목장부지(60,737㎡)에는 전문인력 양성용 △실내 승마장(660,24㎡) △실외 승마로(750m, 폭 3m) △마방 51실 △강의실 창고 등 총 20억 원 규모의 승마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정부 및 지자체와 사업비 지원 협의를 이어갔다.

강민수 교수는 “말산업은 지역적 역사적으로도 우리 제주가 비교우위

에 설 수 있다”며 “우리 말산업학과가 말산업의 허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대는 현재 교육과 연구용 마필 5두와 한국마사의 제주경마본부가 기증한 최상급 마필 10두를 포함해 총 15두의 마필을 보유하고 있다.

수산자원사업단과 협약체결

인력교류 및 학술공동 연구

제주대와 수산자원사업단(이사장 양태선)이 지난 11일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인재양성 등을 위한 해양수산분야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해양수산분야 정책 공동개발 △인력 교육 및 교류를 통한 인재 양성 △정책 및 학술 공동 연구 △기술·정보 교류 및 주요 행사 공동 개최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협의했다.

한편 수산자원사업단은 인공어초, 바다숲, 바다목장의 조성과 건강증진 모방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 ‘추사 유배길’ 체험코스 내달 개장

스토리텔링연구개발센터

유배기간 동안 자신만의 서체를 완성한 ‘귀양다리(유배인)를 뜻하는 제주어)’ 추사(秋史) 김정희(1786~1856년) 선생의 제주 생활을 체험하는 길이 내달 열린다.

스토리텔링연구개발센터(센터장 양진건 교수)가 지식경제부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인 ‘제주 유배문화의 녹색관광자원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사업’ 중 ‘추사의 길’ 3개 코스의 기획을 마치고 다음달 23일 개장한다.

‘추사의 길’은 당대 최고의 서예가이자 학자인 추사의 흔적과 자취가 남아 있는 서귀포시 대정과 안덕을 중심으로 유배 노정을 따라가며 8년 3개월간의 삶을 느낄 수 있는 스토리텔링 중심의 도보체험코스다.

1코스는 국가 지정 사적 제48호인 추사 유배지를 기점으로 대정향교를 순환하는 코스로 추사가 거거한 초막 굴중옥(楡中屋)과 추사의 대표적인 그림 세한도(歲寒圖, 국보 제180호) 등 추사의 유배생활을 직접 느껴볼 수 있다.

추사 유배지를 출발, 오설록까지 이어지는 2코스에선 수선화 등 아름다운 꽃과 차문화를 즐겼던 추사의 맛을 음미할 수 있다. 이어지는 3코스에서는 제주의 해안을 보며 사색을 즐겼던 추사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연구개발센터는 이미 1기 유배문화 해설사 25명을 대한 교육을 마쳤으며, 가이드북과 스토리북 발간은 물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지난 13일 제주시 웅담동 세심재 갤러리에서 ‘추사유배길 관련 음식 상품 개발 전시회’가 열렸다.

선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또 추사가 즐겨 마셨다는 보리누룩으로 빚은 ‘추사 막걸리’ 등의 일명 ‘추사의 밥상’ 상품을 내놓았다. 보리밥, 메밀파전, 고동어구이, 썬아채 등 10가지로 구성된 추사 유배 밥상은 제주대 스토리텔링연구개발센터의 의뢰로 고경순 제주향토음식문화연구소장이 개발책임자로 나서 개발했다.

이 상품은 마을공동체 사업장에서 판매해 주민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3일에는 제주시 웅

담동 세심재 갤러리에서 추사유배길 관련 음식 상품 개발 전시회가 열렸다.

이날 전시장에는 일반 도민은 물론 관광객, 외국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했다.

스토리텔링 연구개발센터 양진건 교수는 “반응이 아주 좋았다. 상품 자체가 특이하기도 하고 유배밥상은 웰빙 건강식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고증을 바탕으로 기획했기 때문에 학습효과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김은실 수습기자

제주식품산업학회 회장에 강영주 교수

PC Help Desk 운영

지난 10일 창립총회

강영주(식품생명공학과) 교수가 제주식품산업학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제주식품산업학회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가 지난 10일 제주칼호텔에서 열렸다.

제주식품산업학회는 제주식품산업에 관한 정책개발 및 학술연구와 산·학·연·관 상호간 교류를 통해 제주식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창립됐다.

제주식품산업학회에서는 △산·학·연 공동학술연구의 수행 △제주식품산업 관련 정책개발 △학술발표회 △강연회와 토론회 개최 △기술교육 △산·학·연·관의 유대강화와 상호 정보 교환 등의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농식품부, 지경부 등 국가식품산업관련 사업 유치를 위한 TF 팀도 운영한다.

이날 학회 창립기념 세미나에서는 (주)지역아카데미 김재곤 부장의 ‘국가 식품산업 정책사업의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학내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유지보수할 수 있는 ‘PC Help Desk’ 서비스가 운영된다.

이 서비스는 PC와 프린터, 소프트웨어 등에 등과 관련된 무상으로 상담과 수리를 해주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장애와 5M 이내 랜케이블, 인건비 등 비용은 무상수리 받을 수 있다. 이밖에 하드웨어 부품 비용은 해당 부서에서 부담해야 한다.

Help Desk는 정보통신원 1층에 상주한다. 문의=PC Help Desk (754-4681~2)

학생자치기구 전제에 최선... 예산운영 투명성 강조

인터뷰

제26대 육하원칙 총대의원회

-출발소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 활발한 분위기 속에서 출범식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이번 출범식처럼 한 해 모든 일을 훌륭히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어떤 대의원회가 될 것인가

“대의원회 역할이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자치기구들을 견제해 빠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주축에 있어서 신뢰성을 갖춰야 한다.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 예산감사에 투명성을 기하겠다.”

-지난해 총대의원회 체제에서 아쉬운 점은 무엇이며, 올해 총대의원회 체제가 지난해보다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지난해는 총대의원회의 체제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 그렇지만 올해는 실질적으로 총대의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벌써 법경대와 자연대는 대의원회 사무실을 찾았고, 다른 단과대학들도 속속 자리를 배정 받을 계획이다.”

-감사방기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지난해 신문고 제도를 만들어 문제가 제기되면 단과대학 학생회까지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에는 총대의원회 체제를 바탕으로 감사 범위를 과학생회까지 넓힐 예정이다. 또 수시감사제시판을 만들어



육하원칙 총대의원회. 오른쪽부터 김민석(정의 4) 회장, 오승준(회계 4) 부회장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전자투표제 공약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현재 전자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매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4월 중 구매를 한 후 선거가 이뤄지는 11월까지 시범운영해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처음 도입되는 만큼 실질적인 운영에는 신중을 기하겠다. 올해에는 참여하는 학생들이 적은 대의원회 선거나 단과대학 선거에서만 사용해보는 계획이다.”

-올바른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으로 어떤 점을 변화시킬 것인가

“지난해는 후보자 선거운동본부학생들이

자동차로 학생들을 투표소로 데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그로 인해 이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신에 단과대학 입구에서 선본들이 불법 유세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총대의원회 체제가 갖춰진 만큼 단과대학을 비롯한 모든 건물 등에서 이뤄지는 당일 불법 선거운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대의원회는 학생들의 편의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구다.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려는 생각으로 대의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길 바란다.”

강보배 기자

인터뷰

제26대 YOU&I 동아리연합회

-어떤 동아리연합회를 만들고 싶은가

“학생들과 거리감 없는 동아리 연합회를 만들 것이다. 기존의 학생자치기구 특유의 권위주의 보다는 친구 같은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언제든지 동아리 사무실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동아리를 이끌기 보다는 뒤에서 동아리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밀어주는 동아리연합회가 되겠다. 학생들 스스로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교생활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싶다. 이를 통해 동아리연합회가 교내를 넘어서 제주도내 청년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제주 청년문화의 메카가 될 것이다.”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기피하는 현상을 넘어 동아리들이 총체적인 위기라는 말이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대학생들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취업을 위해 동아리활동이나 기타 대외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학교 성적이나 취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들을 우선시 하는 것 같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아리 홍보가 급선무다. 새내기 모집 기간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동아리 홍보를 할 수 있는 동아리연합회 통합 홍보부스를 설치하겠다. 또 학생



YOU&I 동아리연합회. 왼쪽부터 홍영기(경영 3) 회장, 정우석(철학 4) 부회장

회관에 LCD를 설치해 시각적으로 동아리 홍보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학생복지과와 협의하는 중이다.

이와 함께 각 동아리 집행부들끼리 교류를 활성화해 함께 어울리는 동아리연합회를 만들겠다. 차후에는 동아리연합회를 넘어 제주대 동아리 전체가 서로 교류 할 수 있도록 동아리들의 교류에 힘 쓸 것이다.

이외에도 2학기에는 모든 동아리가 화합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운동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대동풀이때는 타대학동아리들과 연계해 제주 청년들이 자신들의 끼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축제를 만들겠다.”

-가인준동아리와 단과대학동아리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내가 가인준동아리 출신이라 누구보다 가인준동아리와 단과대학동아리의 설자리가 많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동아리에게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취업이나 학업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대학생활 내내 학업에만 매달리는 것은 소중한 대학생활을 반박에 즐기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 자신이 몰랐던 제 2의 적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동아리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신동원 수습기자



제주대학교(총장 허창진)는 JDC·제주의소리와 함께 학생들에게 국제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미래지향적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해 대학생 아카데미를 마련했습니다. 국내의 명강사들을 초청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대학생 아카데미는 오는 6월 14일까지 총 13강좌가 열립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변화하는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국제자유도시와 우리의 도전

변정일 JDC 이사장

제주는 우리나라 섬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녀 보배의 섬으로 불린다. 그래서 정부는 오래전부터 제주를 세계적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러나 정부의 그런 바람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제주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는 전담 기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해 JDC가 탄생했다.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인 JDC가 추진하고 있는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서귀포관광미항, 휴양형 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제주헬스케어타운 등 6대 프로젝트가 제주를 싱가포르, 홍콩과 경쟁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키우기 위한 핵심사업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가 큰 만큼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서는 노스런던 컬리지와 스쿨 제주(NLCS 제주)에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NLCS 제주는 160년 전통의 NLCS의 첫 해외 분교이다. 영국 본교의 교육환경과 시스템, 교육과정을 국내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국내 학력을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다. 학생교환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 영국의 본교에 가서 공부할 수도 있다. 제주가 국제자유도시가 되려면 의료시설도 좋아야 한다. 제주에 영리병원이 들어오면 우수한 의사와 세계적인 의료시설 등을 유치할 수 있다.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단지도 마찬가지다. 이같은 과학단지는 제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 조성되고 있다. 사업자들이 여기에 공장도 짓고, 사육도 지으면서 사업을 벌여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놔도 중요한 것은 제주인들이 외부인들을 따뜻하게 맞아줘야 한다는 사실이다. 사업가

들의 기준,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제주에 올까'라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즉 글로벌 마인드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이끈다.

올 들어 중국인 관광객이 27% 줄었다고 한다. 제주에 변변한 식당도 없고 놀거리, 즐길거리가 없어 이들에게 재미를 주지 못하고 있다. 반면 서울 등 수도권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서울 남대문, 동대문에서 쇼핑하고, 호화로운 대형 카지노에서 맘껏 즐길 수 있으니까 서울로 가는 것이다. 우리가 핵심프로젝트 등 이 많은 시설들을 해놓고 관광객들이 발을 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는 관광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두렵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그리고 과거의 후회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일례로 정부가 경부선과 호남선을 만들던 때 철도의 중심을 부여에 두고 역을 만들려고 했지만 부여 사람들이 총궐기하며 막아섰다. 할 수 없이 철도 노선을 바꿔 대전에 역을 세웠다. 세월이 흘러 허허벌판 대전은 큰 도시가 됐고, 부여는 작은 시골도시로 남아 있다. 어떠한 생각을 갖고 변화를 받아들이냐에 따라 지역의 흥망은 달라진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최근 핸드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꿨다. 지금은 분명 디지털 시대인데, 아날로그 인생을 살아가는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쓰다보니 이제 적응이 됐다. 컴퓨터가 일반 대중에게 보급됐을 때도 이것을 배워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지금도 웬만한 문서는 직접 작성한다. 항상 늦었다고 주저하지 말고, 그 때 바로 실천에 옮겨라. 내가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적응하니까 젊은 세대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것이다. 변화에 순응하려는 노력에는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다. 변화에 대한 생각은 제주도민들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변정일 JDC 이사장

최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제주 아이스십포니월드'다. 관광객들이 여름휴가 때 일몰으로 만든 동굴 속에서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아이스링크를 조성해 스케이트를 맘껏 탈 수도 있다. 또한 갑연아, 아사다 마오 등의 유명한 피겨선수들을 초청해서 공연도 할 수 있다.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 놓으면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를 방문할 것이다. 경비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새로운 아이템이다. 문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베팅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제주도 지방세 수입 4500억의 절반에 달하는 2900억이 모인다. 고용효과는 3500명 정도다. 제주도 관광이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진취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보존과 시대 변화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때 융성한 나라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 변화는 보존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정용복 언론미디어팀장

과거 기억에 머물지 말고 미래 희망에 속지마라

자유롭고 싶다면 변화를 관리하라

구본형(변화경영연구소장)

여러분이 원하는 직업은 무엇인가. 어떤 종류의 직업이든 두 가지 결정적 요소가 있다. 바로 '밥'과 '존재'이다. 직업을 갖는 것은 밥을 해결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는 없다. 여러분의 존재를 채워야 한다. 따라서 좋은 직업은 '밥'과 '존재'라는 두 가지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하고 싶은 일만을 쫓아간다면 존재의 의미는 찾을 수 있지만 밥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단 한가지이다. 바로 '밥'과 '존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밥'과 '존재'라는 2가지 대칭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지금 이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글로벌화이다. 19세기 영국의 역사학자 홉스바움은 자서전에서 "19세기 유럽인들에게는 두 개의 조국이 있었다. 하나는 자기가 태어난 나라고, 그 다음은 프랑스였다"고 말했다. 이 말은 고국을 떠난 청년들이 학문을 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을 했던 당시 상황을 빗댄 것이다. '글로벌'이란 공간적인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마음속이 세계를 받아들이는 의미도 있다. 정신적인 크기를 글로벌하게 가지면 그게 글로벌이다. 이제 우리도 수많은 제3세계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마음속에 그들에 대한 차별이 생긴다면 글로벌하지 않은 것이다.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가는 것만이 글로벌화가 아니다. 사람의 정신적 크기가 작은 공간에 불들려서는 안 된다.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최고인가'는 의미가 없다. '내가 유일인가'가 의미가

크며 가치가 있다. 평균적인 사람에서 벗어나 유일한 사람이 돼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평균적인 인간은 경쟁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다. 내가 무엇으로 유명해질 것인가, 무엇으로 특별해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은 전문가의 시대다. 길어지고 있는 수명도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90세 가까이 된다. 기업이나 직장에서는 은퇴를 하더라도 40여년 정도는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50세에 퇴직해서 40여년을 일없이 산다면 지옥과도 같을 것이다. 지금의 경제활동 모델을 고쳐서는 행복한 삶을 살기 어렵다. 퇴직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 여러분의 후반기기를 위해선 직업이 아닌 '전문성 차별성 유일함'을 준비해야 한다.

자기를 들여다보라. 내가 남들보다 무엇을 잘하는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자신의 모습을 그려본다. 진실한 욕망과 감추어진 잠재력은 무엇인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자기를 찾는 과정을 통해 앞날은 행복해지고 밝아진다.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불편해 한다. 고민이 없었기 때문이다. 학창시절 학과목을 시험 보면 늘 100점짜리 과목도 있고 70점짜리 과목도 있다. 다음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70점짜리 과목이 된다. 대학 때도 약점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돼버렸다. 시대적 요구는 전문가를 요구하고 자신의 브랜드 파워를 가지는 것인데 우리들은 단점을 보완하기에만 급급했던 것이다. 여러분의 강점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투자한다면 남들보다 훨씬 잘 할 수 있다. 어느 분야를 선택하더라도 다양한 각도와 시선을 가져야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게 대가다. 이를 위해 하루 3시간 10년간 10000시간을 나의 강점에 투자해야 한다. 이를 '침묵의 10년'이라고 말할 수 있다. 1만 시간은 여러분을 빛나게



구본형 변화경영연구소장

할 것이다.

여러분은 혹시나 '지방 대학'이라는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학교 레벨이 서류전형의 중요한 기준이었던 것은 과거의 일이다. 지금은 입사지원자들의 출신 대학이 매우 다양해져서, 대학 간 차별을 두는 것이 무의미해졌다. 또 인사담당자들은 출신 대학이 업무 성과와 상관관계가 분명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를 즐길 수 있는 준비가 철저히 돼 있는나이다. 변화 자체가 우리의 일상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변화야 한다. 살아가는 이유는 삶이 주어졌기 때문이고, 변화야 하는 이유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야 하는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다. 변화의 구체적인 방식은 '자신만의 하루'라는 일상적 삶을 창조하는 것이다. 과거의 기억에 머물지 말고 미래의 희망에 속아서는 안 된다. 오늘 하루를 즐겁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자신의 세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정용복 언론미디어팀장

스마트폰, 와이파이가로 캠퍼스 더 '스마트'해 질까?

스마트 캠퍼스 구축 나서

스마트폰 이용자가 1000만명을 넘기며 대한민국에 스마트폰 열풍이 불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제주대도 스마트한 변신을 진행 중이다.

먼저 제주대는 스마트캠퍼스 구축을 위해 KT와 협약을 맺고 싼 값에 스마트폰을 공급하고 있다. 재학생과 교직원, 교수, 신입생 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단말기 값을 지원하고 있다. 공급하는 스마트폰은 아이폰4와 갤럭시 K 두 종류다. 아이폰4의 경우 13만 8000원의 혜택을, 갤럭시K의 경우 11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아이폰4(16G)로 기본사용료 4만 5000원(I-라이트 요금제)를 30개월 약정으로 사용할 경우 스마트폰 단말기 금액을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단 USIM, 채권보전료는 본인 부담).

이와 함께 제주대는 KT와 협의를 통해 학교 내 전지역에 대해 와이파이(Wi-Fi) 구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또 제주대는 도서관열람실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해 운영 중이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제주대의 모든 도서관 열람실의 좌석 배치 현황을 실시간으로 바로 조회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별도의 입력없이 조회가 가능하고 한눈에 빈 좌석 수를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열람실을 선택하면 열람실의 좌석 배치도를 통해 좌석 배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선호하는 특정 좌석에 대한 점유 현황까지 파악이 가능하다.

제주대는 이외에도 JDC, 제주의소리가 함께 운영중인 'JDC 대학생글로벌아카데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강의를 듣고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블로그(blog.naver.com/JDCAcademy)와 페이스북(facebook.com/JDCAcademy)에 강연 일정과 강사소개, 그리고 강연내용 등을 상세히 담아 PC는 물론,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볼 수 있으며, 강연내용에 대한 후기 등도 실시간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놓았다.

그러나 아직 제주대는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 이미 일부 다른 대학들은 학교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제주대는 본관 앞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3대를 설치하고 전기차 3대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7일 허창진 총장이 전기자동차를 시승하는 모습이다.

하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대학홍보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여대는 대학 최초로 강의시간표, 강의계획서, 성적 등의 학사·학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모바일 웹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대부분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내 공지사항과 대학소개 서비스는 물론이고 개인시간표 조회, 강의계획서 조회, 강의평가, 성적 조회, 복학 신청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 밖에 교수면담시간 조회, 입시경쟁률 확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전주대는 학사·학적 정보뿐만 아니라 주변 식당 맛집과 취업정보와 같은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단국대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이용해 대학홍보와 학사·학적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다. 정보통신원(원장 김경연)도 이러한 타대학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주대에 딱 맞는 맞춤형 스마트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보통신원의 김경희 정보통신담당관은 "아직 무선인터넷망이 노후화로 인해 접속이 원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는 스마트캠퍼스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

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며 "인프라가 구축되면 본격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스마트폰의 활용도를 계속 높여나가 나중에는 이라닝과 같은 강연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엠러닝(M-learning)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함께 스마트한 제주대를 이끌고 있는 또 다른 분야가 있다. 바로 스마트그리드 분야다.

스마트그리드는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T)을 접목해 에너지 네트워크와 통신 네트워크가 합쳐진 지능형 전력망을 일컫는다.

특히 제주대는 국내 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했다. 제주대는 SK에너지와 체결한 산학협력 협정(MOU)에 따라 본관 앞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3대를 설치하고 전기차 3대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운전자 예비교육을 받은 교직원 10명이 직접 타고 다니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고 있다. 제주대는 전기차 시범운행을 오는 2012년 5월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운영대상도 교직원에서 학생에게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보배 기자

Challenge Passion Creativity

JDC 대학생 아카데미 University Academy

기간 ▶ 2011년 3월 8일 ~ 6월 21일(개강 3월 8일)

| 홈페이지 | www.jeju.ac.kr
 | 페이스북 | facebook.com/JDCAcademy
 | 블로그 | blog.naver.com/JDCAcademy
 | 문의 | 제주대학교 취업전략본부 T.064) 754-2114

강의일정

3월 8일 변정일 JDC 이사장 국제자유도시와 우리의 도전	3월 15일 구본형 변화경영연구소장 자유롭고 싶다면 변화를 관리하라	3월 22일 크리스티나 마르티네스 아틀란티다 출반	3월 29일 박상원 국가정보원 연극적 상상과 창조적 열정	4월 5일 박정현 변화경영연구소장 새로운 리더십의 방향과 도전	4월 12일 박종하 변화경영연구소장 창의성에 관한 세 가지 키워드
4월 26일 문정인 언론계 중국식 내일을 본다	5월 3일 허영호 LG 이노텍 CEO 비정규직 인제형 / 큰 꿈을 향해	5월 17일 스티브킴(김용중) 온.비전, 미래비전 아시아의 변화하는 소비패턴과 기업전략의 변화	5월 24일 지승룡 연세대학교 문화이론 '인도'의 관성으로	5월 31일 정인영 한국과학기술원 새로운 리더십의 방향과 도전	6월 7일 이금룡 (주)로빈슨 회장 디지털시대의 창조적 리더십

| 주최 · 주관 | JDC 제주대학교 취업전략본부 제주대학교 제주대의소리

재조명한 유학은 철학이요, 인간학

학술기고 유학(儒學)을 위한 변명

1. 유학은 재조명되고 있는가

다산 정약용(丁若鏞, 1762~1863)을 통해서 조선 성리학과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의 관계를 조명해온 한형조(韓亨祚, 1959~)는 “근대화를 위해 전통이 부정되었고, 근대화 이후에 전통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고 말한 일이 있다. 그러면서 “서구화론자들은 전통을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전통론자들은 전통을 일방적으로 찬양한다. 두 주장이 부딪칠 때, 진실은 언제나 가운데쯤 있다.”고 말한다. 진실이 가운데쯤 있다는 말은 ‘동양적인, 너무도 동양적인’ 말로 들린다. 그런데 근대화와 전통이라는 문제에서만큼은 진실이 가운데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

물론, 1980년대 민주화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을 재조명하는 일이 유행처럼 번졌다. 그런데 이 일을 주도한 것은 근대화의 세례를 받은 젊은 세대들이다. 이들은 근대화를 개지프레이즈로 내건 기성세대의 과오를 비판했다. 그렇다면 전통의 재조명은 근대화를 성취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일까, 아니면 서구적 근대화를 강요한 기성세대의 과오를 비판하려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래서 이 글에서는 ‘유학(儒學)이 전통을 대표한다’는 전제하에 전통과 근대

화가 대립하는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공맹학(孔孟學)은 경학(經學)인가

서양철학의 방법론을 배웠던 중국철학사가 노사광(勞思光, 1927~)은 공맹학을 인간학으로 정의한다. 그래서 유학, 더 나아가서 중국철학이 주(周)나라 말엽의 공자(孔子, B.C.551~B.C.479)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말하면서, 공자를 인문주의를 회복하고자 한 인물로 서술한다. 하지만 조기빈(趙紀彬, 1905~1982)처럼 공자를 시대착오적인 귀족 전제정치의 신분제도를 옹호한 인물로 서술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자와 맹자를 말하고, 유학을 말하는 것이 ‘옛사람들의 어록 모음집으로 철학을 오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노사광에 따르면, 공자는 인(仁), 의(義), 예(禮)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정명(正名)과 직(直), 그리고 충서(忠恕)와 성덕(成德) 공부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데 이것들을 관통하는 공자의 문제의식은 바로 ‘인간’이다. 공자는 인간과 그 관계에 주목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仁)은 인간다움을 말하는 첫 번째 출발점이며, 의(義)는 고대 사회의 종교적 천(天)을 대신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사태와 사물을 규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요, 예(禮)는 인간다움에 필요한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방식, 또는 행사하는 그 자체가 된다.

물론, 타인을 사랑하고 백성을 잘 다스린 다거나, 자기의 욕구를 억눌러 예(禮)로 돌아간다는 그럴 듯한 해석이 후대의 유학자들에 의해 날조된 것일 뿐, 실제로는 노예주를 사랑하고 노예를 부리며, 노예제 질서를 스스로 감당하라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고착화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공자와 맹자의 ‘어록 모음집’인 『논어』와 『맹자』를 말하는 것은 인간과 세계의 근원 또는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비판들을 염려했기 때문에 노사광은 거두절미하고 공맹학을 ‘인간을 지향하는 학문’으로 정의하고, 적어도 한자문화권에 있어서는 근대적 의미의 철학이 공맹학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3. 성리학은 전근대적인 학문인가

주자가 집대성한 성리학(性理學)이 도덕적 이성을 자각하고, 그것을 확립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형이상학화 했다는 것이 청대(淸代) 실학자(實學者)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같은 관점에서 김충렬(金忠烈, 1931~2008)은 전목(錢鏞, 1895~1990)의 말을 빌려, ‘그들



영화 <공자-춘추전국시대(2010)>의 한 장면

이 수렴하고자 한 학문의 중점이 대체로 추상적인 본체론 쪽으로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공소(空疎)한 이론만이 발달하여 마침내 이민족의 침입을 막아내지 못하고, 서구 과학 문명의 도전 앞에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공자 이래 유학적 전통에서 우주의 물질적 구성이나 존재 양식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을 자연(自然), 곧 ‘조작과 안양(安養)’이라는 인간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

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대(漢代)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지배이데올로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유학의 심성론적 전통을 왜곡시키고 단절한 채, 세계의 구성 원리에 대한 목적론적 신학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성리학자들은 전통에 입각하면서도 새롭고 고급스러운 철학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시마다 겐지(島田虔次, 1917~2000)는 주자학의 성립, 곧 성즉리(性卽理)의 체계가 성립한 것을 두고 “동아시아 세계에 있어서 세계사적인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이미 유학 내부에 깊이 들어와서 이제는 분리해내기 어려운 우주론적 요소들을, 잘만하면 도교와 불교의 고급스러운 형이상학적 체계와 맞설 수 있는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착상에서 출발, 인간의 본성론을 중심으로 한 공맹의 철학체계를 부흥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주자는 가치의 문제[心性]가 사실의 문제[理氣]에 기대어 있다고 설명해서 유학 전통을 온전히 되살리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리학이 추상적인 본체론에 치중했기 때문에 서구 과학 문명에 무기력하게 대처하게 되었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

4. 유학은 유학이다

역설적이지만, ‘근대화를 이룬 우리’는 다시 유학을 ‘전통’으로서 재조명하려고 한다. 그리고 모하게도 그것은 서양철학에서의 ‘근대’로 정의되는 인간학적인 면에서 구상되고 해명된다. 예컨대 다산 정약용만 하더라도 그의 인간관이 중세 기독교의 영혼론과 비슷하고, 그의 이론바 실학이 서양의 자연과학적 탐구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근대적이라고 평가 받는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양명학이나 주자학도, 그리고 공맹학도 서양의 근대적 인간중심주의가 흘러들어가 전에 인간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의 문제를 탈종교적, 탈중세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

고마운 말이지만, 이렇게 읽어나가다 보면 문득 우리가 사용하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 곧 ‘근대’와 ‘인간학’이라는 말이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은 의구심이 든다. 도대체 근대는 무엇이란 말인가. 탈레스 이후로 데카르트에 이르기까지 서양이 성취해온 바로서의 근대를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경험하는 민주적인 정치형태와 자본주의적인 경제 형태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인간학이나 인간 중심주의도 마찬가지다. 근대라는 의미에서 인간중심주의는 종교를 벗어나 인간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기초로 한 것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인간에 대해 진즉부터 관심을 가져온 유학이야말로 인간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과연 누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문득 더 이상 유학을 위한 변명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든다. 서세동점(西勢東漸)이 시작되던 시기에 중세 기독교적 질서를 전파하려 온 선교사들이 기원전 2천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 사상에 경외심을 느껴 중국말을 배우고, 중국의 경전 속에서 자연신론의 흔적을 찾아내던 일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요컨대 유학은 서양의 개념을 빌지 않아도 철학이요, 인간학이다. 아울러 같은 점에서 유학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폐기되었던 적도 없지만, 그것이 오리엔탈리즘에 기초한 것이라면 다시 인간학이라는 이름으로 재조명받을 필요도 없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김치완(철학과) 교수

● 안권의 책



<심리학이 서른 살에게 답하다>
김혜남 지음 / 권는나무

“서른 살이여, 이렇게 살아라!” 국내 최초로 심리학의 관점에서 서른 살의 삶을 조명한 책 『심리학이 서른 살에게 답하다』는 20년 동안 정신

분석 전문의 경험을 바탕으로 심리학의 관점에서 젊은이들의 삶을 조망하여 삶을 건 강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만든다.

이 책에서는 서른 살이라면 누구나 겪었을 법한 고민들을 심리학적으로 짚어보며 조언한다. 저자는 왜 서른 살은 문제가 많은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때론 상처 받고 때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고민을 멈추지

말도록 강조한다.

저자 자신도 서른 살을 숙제하듯이 살았으며, 늘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사랑 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조바심 치며 일을 즐기지 못했고 불안에 시달렸다고 고백한다. 이런 지천명의 나이가 된 정신분석자로서 ‘해야 한다’ 말보다는 ‘~하고 싶다’ 혹은 ‘~하니까 즐겁다’는 말을 하면서 살라고 권유한다.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갇히려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면 지금부터 찾아보아도 결코 늦지 않은 서른 살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힘을 북돋워준다.

저자는 책을 내기 전, 서른 살의 젊은이들이 많이 만나 그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알고자 하였다. 하지만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고민도 다양하였으며, 특히 서른 살로 삶을 살아가는 이 시기는 총체적으로 볼 때 힘든 시기이다.

서른은 심리적으로는 어른이 되지 않은 시기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홀로 서야 하

며, 아직도 상처 받는 게 두렵고 혼자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게 무서운데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약하다고 비난 받고, 초라한 모습을 들켜기가 싫어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고는 공허함과 외로움에 방황하는 시기이다.

사실 정신분석 상담은 답을 주진 않는다. 사람에 따라 인생의 답이 다르므로 어느 한 가지 정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대신 문제의 원인을 같이 찾아가면서 스스로 “아하,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하는 통찰을 얻을 수 있게끔 도와준다. 이처럼 자신의 문제를 알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 또한 생기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서른 살의 젊은이들이 자신과 세상, 삶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들을 꼬집고 그것을 바로잡아 앞으로 나아갈 용기와 희망을 갖게 만든다. 왜냐하면 감정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는 아닌지, 왜 내성적인 성격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 오해일 뿐인지, 왜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지겨운 때

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 등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 동안 무의식중에 가지고 있던 오해와 편견이 얼마나 많았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소중함 삶의 에너지가 얼마나 쓸데없이 낭비해 왔는지도 돌아보게 된다.

인생은 어느 때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과거 서른 살은 열심히 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앞을 보며 달려가는 시기였다. 그러나 경제나 취업, 가정 등으로 불안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지금의 서른 살은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기 어려운 나이가 되었으며 지금 이론 것이 없다며 자책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겪는 고통이 끝이 없어 보인다 해도 분명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고 일어서 수 있다. 자신 내부에 있는 놀라운 힘을 믿고, 그 힘을 든든한 지원군 삼아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아직 서른 살인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다.

김경순 상담심리학 박사·상담심리전공 강사

서른 살의 강을 현명하게 건너는 52가지 방법

JUM

제주대학교 59기 수습기자모집

수습기자가 되면 ...

A급 장학 혜택 장학금 및 취재료, 원고료, 식비 제공

다양한 취재 기회 제공 (미국, 일본, 중국등 해외 원정 취재, 국내외 다양한 기획 취재 및 연수 제공)

멀티미디어기기 제공 개인 데스크 및 취재용 카메라, 편집용 컴퓨터

현직기자에게 배우는 기자 교육 및 실습 (보도기사작성에서 보도사진 등)

차세대 신문제작 시스템을 이용한 신문 편집 교육

모집대상 아라캠퍼스, 사라캠퍼스 11학번 학생

원서마감 3월 31일 목요일

장소 본관 대학원동 3층 언론미디어센터 내 제주대신문사

문의 의 제주대신문사(754-2277)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인론미디어센터에는 꿈을 찾는 이들, 꿈을 꾸는 이들, 꿈을 만들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녀도, 우리는 두근두근 가슴이 뛰니다.

가슴 뛰는 일상으로 빠져볼까요?

꿈을 꾸는 이들, 꿈을 꾸는 이들, 꿈을 만들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녀도, 우리는 두근두근 가슴이 뛰니다.

교사임용 합격률 만전... 통합효과 점차 가시화

● 인터뷰 최태희 부총장·교육대학장

-취임 소감
“교육대학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대학 구성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교육대학이 전국 최고의 초등교원 양성기관으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합과정의 갈등 해소와 내부 화합은
“통합 이후 교직원들의 교류가 활성화 됐다. 융·복합 박사과정의 개설, 강의 교류, 공동 연구 등을 하고 있다. 교사교육센터 건립, 건강증진센터 설치, 학생회관 리모델링, 등으로 교육환경이 개선됐다. 이외에도 교내·외부 장학금 수혜율과 해외봉사활동, 해외교육실습 등 학생복지도 향상됐다.
통합 당시 재학생과 동문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많이 정리된 분위기다. 조금 갈등의 골이 남아있지만 차차 회복될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 대학

구성원들의 소통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다.”
-아직 학생들간에는 거리감이 큰 것 같다.
“아무래도 캠퍼스가 나눠져 있어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기가 어렵다. 양 캠퍼스 학생회간 교류, 대동제 참여, 아라캠퍼스 교양과목 참여 등 학생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겠다.”
-임기동안 이루고 싶은 성과는
“교육대학 학생들의 임용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임용시험 전문가를 활용한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겠다. 또 임용고시반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두 번째는 교육과정을 개편하겠다. 현재 교육대학은 졸업학점이 150학점에 이른다. 효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해 학점 수를 낮추겠다. 대신 임용시험·초등교육 현장과의 연계로 교육과정의 질은 더욱 높아지겠다.”
-마지막으로 대학구성원들에게 한마디



최태희 부총장

“대한민국 초등교육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교육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교육대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구성원 여러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강보배 기자

대학원 입학정원 재조정... 외국인 학생 10% 유치

● 인터뷰 정충덕 대학원장

-취임 소감
“대학원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맡게 돼 책임감이 크다. 대학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대학원 입학정원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하겠다. 기존의 입학정원이 학과·전공별 지원자 수를 고려하지 않아 효율적으로 학생들을 받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자 수와 학위를 취득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고려해 새롭게 입학정원을 조정하겠다.
또 제주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대학원을 새롭게 신설하겠다. 제주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무궁해 이미지를 살린 식품이나 문화공연 관련 대학원을 만들고 싶다. 또 제주의 주요 자원인 물을 활용한 물산업 대학원도 좋을 것 같다.

이외에도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특히 아시아권 학생들은 제주대는 거점 국립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 외국인 대학원생의 비율이 7~8%정도 되는데 이 비율을 10%까지 올리겠다.”
-지난해 대학원 조직개편의 장단점은
“조직개편 후 행정실의 업무가 교무과, 학사과, 학생복지과, 입학관리과, 국제교류센터로 이관됐다. 이로 인해 업무가 분산돼 대학원생들 관리와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대학원 행정실이 필요하지만 아직 조직개편이 이뤄진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또 조직개편으로 업무처리의 전문성이나 집중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잘 활용해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대학구성원들에게 한마디



정충덕 대학원장

“대학원 교육이 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대학구성원들의 힘이 모아져야 한다. 구성원들이 대학원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길 바란다.”

강보배 기자

로스쿨 평가 철저히 대비... 변호사 시험 합격률 중요

● 인터뷰 김창군 법학전문대학원장

-취임소감
“올해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의 완성년도다. 이러한 시기에 원장을 맡게 돼 마음이 무겁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법전원의 가장 큰 현안이다. 합격률이 높게 나오면 우수신입생들도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올해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는 데에 온 힘을 다할 생각이다. 방학에 서울 유명 로스쿨 교수와 학원이 유망 강사들을 초빙해 특강을 열 것이다. 또 대비 시험을 정기적으로 치러서 학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돕겠다.”
-내년 하반기 보평가 준비는
“내년 하반기 보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정월갑주 등 많은 불이익을 받는다. 때면

에 올해부터 보평가에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다. 평가를 대비해 법전원의 부족한 부분을 꾸준히 보완하고 점검반을 만들겠다.”
-법전원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우수신입생 확보가 어렵다. 법전원에 합격한 상위권 학생이 수도권 유명 법전원과 이중합격 돼서 가버리는 일이 있다. 장학금 제도와 기숙사 우선제공 등 생활편의를 제 공해 우수인재를 끌어모으겠다.”
-변호사 단체들이 법전원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현 75%보다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 단체의 주장은 기존의 사법시험 합격자들에 비해 로스쿨 학생들이 학업성취도가 부족할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엄격한 상대평가로 뒤처지는 학생들을 유급시키고, 졸업시험을 시행해 출중한 학생들만 졸업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변호사단체의 우려는 기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김창군 법학전문대학원장

-마지막으로 대학 구성원들에게 한마디
“내년 변호사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하반기 보평가를 잘 받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용희 기자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마련... 인생 본보기 제시

● 인터뷰 김철수 자연대학장

-취임소감
“대학 내 격변의 시기에 학장직을 맡게 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내가 학장직을 맡는 동안 자연과학대학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또 우리 자연과학대학에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기초과학분야 수업들의 질과 양을 높이기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고등학생 때 기초과학분야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멘토링제도 시행하겠다. 더불어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취업전략부와 연계해서 많은 프로그램과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또 가족회사를 선정해서 협력을 맺고 산학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현장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은 물론 졸업 후에 취업진로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이공계기피 현상과 학생들이 느끼는 취업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취업문제는 비단 우리 자연과학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어려움을 기피하는 성향을 버리고 전공과목인 기초과학분야에 매진해서 기본적인 실력을 증진해야 할 것이다.
또 꾸준한 자기개발을 통해 어디서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재가 돼야 한다. 또 국가나 사회에선 이공계 계열로 성공한 롤모델을 많이 제시해주는 한편 우리 이공계 학생들의 진정한 가치를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대학에 들어오면 열심히 대학생활을 하든 아니면 적당히 대학생활을 보내든 4년이란 똑같은 시간이 주어진다. 남들과 같은 4



김철수 자연대학장

년의 대학생활을 한다면 열심히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서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졸업할 때는 몇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으면 한다.”

신동원 수습기자

소통 위한 ‘혁신전략위’ 구성... 공학인증제 강화

● 인터뷰 안기중 공과대학장

-취임소감
“여러 교수님들이 나에게 보내준 믿음에 대한 책임감이 가장 크게 느껴진다. 임기동안 교수님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최선을 다 할 생각이다. 학생과 교직원들을 한 호흡에 소통할 수 있게 소통의 장을 만들 생각이다.”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혁신전략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교섭이나 사업수주, 교수연구지원 및 교육지원에 이르는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또 올해에 공학교육인증원에 공과대학 내 6개 학과의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신청했다. 결과는 연말에 나올 예정인데 이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 몇 년

간 공과대학에서 펼쳐온 노력은 모두 올해에 성과를 기대하고 진행해온 치밀한 사전 작업이었다.”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어떻게 봐야하는가?
“공학교육인증제도는 공과대학생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소양을 갖추 수 있게 해주는 교육제도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제도를 선택하는 것은 학생들의 몫이다. 이 제도를 학생들을 가두는 틀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향상을 위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보겠으면 한다. 실제로 교육내용에는 산업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실무능력 향상 위주로 교육을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 말씀
“남들보다 조금 늦게 출발했다고 절대 좌절할 필요는 없다. 과거 몇 년 만을 보고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날들을 포기하는 것은 가장 큰 어리석음이다. 지금 만약 자신이 부



안기중 공과대학장

족하다는 것을 느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해 간다면 충분히 멋진 인생을 만들 수 있다.”

신동원 수습기자

시설·인력부족 해결에 최선... 지역사회 기여에 앞장

● 인터뷰 이은주 간호대학장

-취임 소감
“간호학과가 간호대학으로 승격한 후 첫 학장을 맡게 돼서 책임감이 무겁다. 간호대학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간호대학으로 승격됐지만 아직 여건이 부족하다
“승격 후 학과 정원이 70명까지 늘어났다. 이로 인해 공간·인력부족 문제가 크다. 현재 의학전문대학원과 인문대학, 공동 실습관 건물 등을 활용해 부족한 공간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불편이 크다. 인력부족 문제도 간호대학 구성원이 더욱 분발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자체적으로도 대학동문들이나 지역사회에 발전기금을 모집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대학구성원 모두의 관심

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임기 내 이루고 싶은 사업은
“교과과정을 개편해 학생들의 잠재력과 글로벌 의식을 키우겠다. 간호학은 자연계열과 인문사회계열이 통합적으로 필요한 분야다. 간호학이 단순히 간호사가 되는 길 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함께 배우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들고 싶다.
또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간호대학을 만들겠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소를 만들고 싶다. 또 직접 간호대학이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마련하고 싶다. 특히 노인요양이나 건강관리 분야처럼 간호학이 활약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학의 명예와 도민 건강에 이바지 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대학구성원들에게 한마디



이은주 간호대학장

“간호학과가 간호대학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구성원들에게 감사한다. 간호대학이 제주대의 발전에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강보배 기자

단과대학 승격에 만전... 열악한 수업환경 개선

● 인터뷰 김방희 예술학부장

-취임소감
“중요한 자리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예술학부 내에는 ‘예술대학 승격 여부’가 장 큰 관심사다. 꼭 예술대학으로 승격시키겠다는 각오로 노력하겠다.”
-예술대학 승격을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예술학부는 2년 전에 인문대 소속에서 벗어나 본부직할 학부로 출범했다. 그러나 예술대학이 아닌 ‘학부’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크다. 학부장은 학부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언의 기회가 없다. 학부 행정실도 없어서 인문대학 행정실에서 예술학부까지 맡고 있다.
때문에 예술대학으로 승격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올해는 음악학과,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부가 함께 예술대학으로 승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5월말

까지는 계속 논의하면서 예술대학의 로드맵을 만들 것이다. 늦어도 6월 중 예술대학 신설 신청안을 본부에 올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
-열악한 수업환경 개선은
“올해 음악학과에 냉난방이 마련됐고 미술학과에는 조소실습실이 착공돼 1학기 내로 완공된다. 우선 금년도 시설개선 예산이 투입됐으니 음악학과 공간문제와 미술학과 냉난방 문제는 점차적으로 해결된다. 본부에 예술학부의 열악한 수업환경을 꾸준히 알리고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
-지역사회의 인재를 입학시키기 위해서는
“도민들과 예술을 통해 마음을 교감하면 자연스레 중·고등학생들도 제주대로 발걸음을 돌릴 것이다. 주민들과 예술로 소통하며 예술학부가 도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마디



김방희 예술학부장

“열악한 수업환경에 놓여 있어도 잠재된 능력과 창의력을 잘 발휘하면 얼마든지 세계적인 예술가가 될 수 있다. 자부심을 갖고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고용희 기자

탁상행정 안한다... 업무의 정확성·전문성 강화

● 인터뷰 이문희 사무국장

-취임소감
“제주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다.”
-임기동안 행정서비스 추진방향은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정확성과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동안 직원들의 불친절 문제가 지적돼 친절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친절뿐만 아니라 정확성과 전문성을 갖추야 한다. 행정은 한번 확정된 부분의 수정이 어렵다. 그만큼 일을 처리할 때 정확히 해야 한다. 또 전문성이 갖춰져야 업무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앞으로 추진할 사안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등록금이 3년째 동결돼 학교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높여겠다. 또 현장중심적인 행정을 하겠다. 공무원 조직에 가장 자주 지적되는 문제가 탁상행정이다. 탁상행정을 하게 되면 정확하고 신뢰가 떨어진다. 어떤 문제는 현장을 찾아가 확실하게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행정에서 대학발전을 위해 개선할 점은
“교직원들이 서로 이해하고 돕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직원들은 학교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교수는 연구와 교육을 맡는다. 업무가 다르다 보니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모두가 대학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구성원 모두가 노력한다면 제주대가 한걸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에게 한마디



이문희 사무국장

“직원은 공무원이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역사회와 대학 구성원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강보배 기자



무론유설

고봉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어떤 가치를 중시하고, 어떤 것에 의미를 두시는지요? 제가 독서한 내용 중에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꽤 있는데, 이것을 우선 소개하고자 합니다.

알베르 카뮈의 ‘시지프스의 신화’는 오래 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시지프스는 산 위에 바위를 옮겨다가 떨어뜨리는 일을 반복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시지프스의 신화’는 무의미한 일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의미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형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작년 추석 쯤에 읽었던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이 책의 스토리는 ‘시지프스의 신화’가 말하는 내용과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른 이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아 ‘로고테라피’ 이론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로고스 Logos는 의미를 뜻하는 그리스어입니다. 로고테라피 이론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인간의 원초적 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이 나치수용소에 수용되었던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도 삶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개발한 ‘로고테라피’를 통해 환자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니콜라스 루만의 체계이론은 제가 평소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분야입니다. 체계이론 또한 ‘의미’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미, 차이, 정보’의 관계가 그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의미 기준에 따라 차이를 경험하고, 이 차이를 토대로 정보를 획득하고 정보를 처리합니다. 자기 자

삶의 의미

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실현하려 한다는 점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인생은 의미있는 일로 채워지고 있는지요?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것을 ‘진실되게’ 실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며, 지금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꿈은 마감기한이 있는 목표입니다. 마감기한을 설정해 두고 매일매일 꿈을 이루기 위해 정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자아실현을 넘어 타인에게까지 미친다면, 여러분의 꿈은 성공을 넘어 행복을 선사할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의미를 ‘나 자신의 자기실현’을 뛰어넘어 ‘타인’에게까지 확장하고, 이를 소중히 여기며 인생의 중심 가치로 실현한다면,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하다면’ 남의 행복

은 나의 행복이 됩니다.

불행하게도 무의미한 일을 반복할 수 밖에 없는 시지프스의 불행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현대 사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도와주려고 했던 환자들처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 또한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남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 분들은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고, 우리 사회를 밝게 합니다. 세상 성공의 기준에서 보면 성공하지 못한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의 관점에서 보면 제1행복한 분들입니다. 그 분들의 ‘의미’가 소중합니다.

자신의 의미를 알고 이를 이루기 위해 실행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봉사하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이끌고, 행복의 길로 이끄는 ‘자신의 의미’를 소중히 간직하세요!



기사수첩

김은실
수습기자

대학로란 주로 20~30대가 주축이 되는 문화공간을 일컫는다. 제주대학교에도 제주시청이라는 대학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곳을 진정한 의미의 대학로라고 할 수 있을까. 대학생들이 시청으로 향하는 목적은 대부분 ‘음주’를 위해서다. 음주문화는 학우들 간에 교류의 장을 마련해주기도 하지만 단지 그제 전부러낸 문제가 된다.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젊은 문화는 유흥 및 향락적 소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시청 대학로에선 술 외에 막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온통 술집뿐이니까. 막상 대학문화 구축을 위해 뭔가 시작해보고자 해도 막막하다. 술, 술, 술, 술집뿐이니까.

따라서 건전한 대학문화의 필요성만 덮어놓고 역설하기보다는 대학로 환경의 재정비 방안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안이 있었다.

첫째, 캠퍼스와 대학로의 거리가 지극히 가까워야 한다. 현재 제주시청 사거리는 학교에서 버스로 대략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례서는 학생 주체의 문화전락 추진에 교통이 걸림돌이 된다. 학교 바로 앞 정문에 문화거리를 조성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린벨트 등 당장의 문제요소가 많으니 차선책으로 아라동 일대를 새로운 대학로 구역으로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길만 제대로 놔도 도로에 큰 어려움도 없는 거리이고 이미 포화상태인 시청 인근에 역지로 비집고 들어갈 수도고 필요 없다.

둘째, 실질적인 문화공간이 필요하다. 공연예술에 초점을 맞춰 보자면 아라캠퍼스만

하더라도 현재 활동 중인 공연분과 동아리(가인준 포함)만 10여개에 달하는데 매년 공연 때마다 소극장이나 문예회관 무대를 선점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어렵게 공연을 유치한다 해도 그런 곳들은 전부 학교와 거리가 멀어 지인 외엔 일부러 발걸음을 하는 관객이 드물다. 대학생 및 일반인들을 끌어당길 수 있을 만큼 넉넉한 무대와 서비스가 제공되는 활동공간이 필요하다. 전시분과 및 타 문화행사 역시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제주대학생 스스로가 문화주체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수도권 대학로가 활성화된 것은 결정적으로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그러한 문화를 이끌어갔기 때문이다. 기반이 없어서 제주도에선 뭐든 안 된다며 투덜거리기 전에 자신들이 그 초석을 다지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초기에 어마어마한 투자와 지원이 요구되는 간 큰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금전적 부담 없이도 대학생들이 자신의 움직임이 지역사회에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 학도들이 시내 카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면, 미대생이나 그림 동아리가 시가지나 부둣가에 이젤을 세우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음대생이나 공연동아리가 난데없이 거리공연을 펼친다면, 도내 중고등학생과 연합하여 새로운 활동을 기획해본다면 어떨까. 어차피 문화의 축은 금전이 아니라 인간이다. 또 문화를 선도하는 것은 젊은 피다.

적어도 누군가가 제주대에 대해 물었을 때 멋있게 자랑할 수 있는 제주대만의, 제주시의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상징 하나 정도는 있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대학로를 ‘大學路’ 답게



독자기고

지동욱
법학 2

또 다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의 뉴스 란에서는 남북 정부의 말, 군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실시간으로 기사화 돼서 올라온다. 그리고 그 밑에는 어김없이 수많은 댓글들이 따라 올라온다.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의 글부터 시작해서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글, 반대로 강경하게 대처해서 전쟁까지 불사해야 한다는 글, 전-현 정부를 비판하는 글,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상업광고글까지 다양하다. 그 중, 나를 잠시 생각하게 만든 글이 하나 있었다. 내용은 이렇다. 이 작은 나라에서 둘로 나뉘어 이리 싸우고 있는 것도 웃기

지만, 그 나뉘어진 땅에서조차도 지역감정으로 서로 갈라져 싸우고 있으니 통일은 불가능할거란 비관적인 내용이었다. 아마 대표적으로 지역갈등을 겪고 있는 두 지역을 꼽으면 글이었으리라.

본인 또한 이러한 지역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고 느끼는 터라 더 관심이 갔을 지도 모른다. 예전에는 제주도라는 지역적 환경 요인으로 인해 주변에서 이런 광경을 지켜볼 일도 드물었고, 그저 이런 지역갈등이 있다는 것만 전해 들었을 뿐이라 큰 감흥이 없었다. 하지만 오히려 소셜 네트워크다 뭐다 해서 온라인을 통한 소통이 더욱더 대두되는 요즘, 현실에서 일어나는 지역갈등보다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지역갈등이 더 심하게 느껴질 정도다.

현재부턴가 흥어-파메기가 각 지역을 쪼

지역갈등 해법 없다

아내리는 단어가 돼 있었고, 어느 지역은 배신을 잘하는 사람이 많고, 또 어느 지역은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은 곳이 되어버렸다. 심지어 민족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는 발언까지... 그 지역들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나도 굉장히 거북스러움을 느끼는데, 하물며 실제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겠는가.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한정적이고 특정적인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 관련 분야는 너무 심해서 말할 것도 없으며 경제, 스포츠, 연예 심지어 게임 관련 카테고리까지까지 만연해 있다. 어느 계시판을 가든 저런 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글로 파생된 네티즌들의 댓글 전쟁까지, 1+1 행사마냥 꼭 따라다닌다.

나는 윗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 악순환을 우리 세대에서 끊어버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에서는 언젠가 우리도 모르게 이 악순환에 휩쓸리게 될 것이고 결국 시간이 흘러 이 악순환의 고리는 더욱더 견고해져서 다시는 끊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개인적으로는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선 인터넷 실명제보다도 더 강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다. (예를 들면,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와 같은 것? 물론 절대로 이런 파국까지 치닫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작은 나라가 두 갈래가 아닌, 세네갈래로 갈라지는 더 웃긴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독자기고

이희원
관광경영학과 석사과정

지난달 27일 오전 9시 10분, 마라톤의 시작을 알리는 총포와 함께 3만5천여 명의 러너들이 일제히 도쿄도 청사 앞 도로를 지나갔다. 8시 45분부터 시작된 도쿄마라톤의 식전 행사에는 일본은 물론 세계 각국의 대종매체들의 인목이 집중됐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인 33만여 명이 지원을 해 추첨으로 한국의 러너 약 450여명을 포함해 3만5천여 명의 러너들이 참가했다.

우선 도쿄마라톤대회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현 도쿄도지사인 신타로 이시하라 도지사의 강력한 추진으로 수년간 외국 유명스포츠 대회를 연구·벤치마킹해서 만든 대회로 프로와 아마추어를 떠나 ‘아시아 최고의 대회’로 인정받으며 일본 마라톤의 진정한 대중화를 이끌어낸 대회로 평이 나왔다. 출발점인 도쿄도청에서 끝임점인 오다바라의 도쿄빅사이트까지 전 구간에 걸쳐 다양한 공연과 행사가 진행되어 마라톤대회라기 보

다는 마라톤축제라고 하는 편이 나을 정도로 규모와 내용면에서 인정받는 대회이다. 특히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수많은 자원봉사자, 휠체어마라톤 등으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2월 25일 금요일, 오후 비행기 편으로 도쿄 나리타로 향했다. 작년 대회 때는 비가 많이 내려서 우의를 입고 뛰었다는데 TV에서 올해도 날씨가 좋지 않을 거라는 일기예보를 보니 조금 신경이 쓰였다. 뭘 때 신발이 젖으면 발이 무겁고 빨리 지치지 때문에 이번 경주는 조금 힘든 레이스가 될 터였다. 평소 하프코스를 즐겨 뛰는데 아쉽게도 도쿄 마라톤대회에는 10Km와 풀코스 밖에 없어 풀코스를 뛰기로 마음먹고 접수를 했다.

2월 26일 토요일, 도쿄마라톤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선 대회 4일 전부터 끝임점인 도쿄 빅사이트에서 본인 확인 및 물품수령의 현장접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오전에 현장접수를 하러 일찍 접수시간 보다 훨씬 일찍 집을 나섰는데도 도착해보니 건물내부 끝에서 끝까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닌가? 다행히 현장접수가 2시간여 만에 끝나 집에 돌아와

TV를 켜보니 역시나 주요방송에선 내일 개최될 도쿄마라톤에 관한 보도가 피리에 피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었다.

2월 27일 일요일, 대회당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밖을 보니 다행히 날이 맑았다. 역에 도착해서 전철 안을 둘러보니 이미 도쿄마라톤대회 참가자임을 알 수 있는 복장의 사람들로 넘쳐났다. 폐쇄된 도로에는 3만 5천여 명의 러너들과 취재진들, 참가자의 가족과 지인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3만 5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회이다 보니 번호에 따라 출발하는 구간이 다르고 시간차가 있었다. 09시 10분 총포가 터지고도 10분이 지나서야 출발점을 지날 수 있었다. 나는 4시간 40분대의 저조한 기록으로 끝임점을 통과하고 완주기념품을 수령했다.

마라톤을 시작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마라톤과의 우연한 첫 만남을 통해 시작되었다. 마라톤은 특별한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장비에 따라 경기력에 차이가 생기는 타 종목과는 다른 면이 있고 또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으며 지구중력과 자신의 힘, 꾸준한 연습만이 경기에 영향력

을 미치기 때문에 외부영향이 다른 스포츠에 비해 상당히 적은 스포츠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아직 마라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다. 연습량도 늘 부족하고 우수한 시간대의 기록을 가진 것도 아니며 대회 전·중·후로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 또한 아직 터득하지 못했다. 다만 시간과 노력으로 철저히 자기자신을 담금질해야 한다는 점에서 나는 마라톤의 매력에 충분히 빠져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올해를 시작하며 뛰는 거리를 늘리고 시간은 단축시키고자하는 기록에 대한 나름대로의 목표를 설정했었다. 그러나 러너와 지역주민들 모두가 즐기는 축제 같은 도쿄 마라톤에 참가하면서 기록에 집착하기보다는 응급처치요원이나 대회스태프, 페이스메이커 등으로 내 자신과 주위의 러너들이 즐겁게 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목표를 전환하게 됐다.

특히 국내외 여러 대회에 참가한 경험들을 현재 공부하고 있는 관광경영학과 연계해 제주지역의 스포츠대회들이 도쿄마라톤 대회와 같은 축제로 발전하는데 많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동문칼럼

시대와 호흡하는 스펙쌓기 관심을

신입생들로 와글와글 할 2011년 제주대 교정, 상상만으로도 새록새록 합니다. 미래를 설계하고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는 점은 20년 전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20년 전 제주대 교정은 어땠을까요? 저처럼 ‘잘못된 시대’ 핑계되며 아예 학교공부를 뒷전으로 밀려 버린 것은 분명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4·3항쟁의 진실을 규명을 위해서,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 거리에 나섰던 대학생들도 적지 않았습다.

그 토양으로 4·3특별법도 만들어졌습다. 오늘날 생각하면 언제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나 한탄도 나오지만 길게 보면 정치적 민주화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20대의 생기발랄한 자발적 촛불도 목격했습니다.

물론 20년 전 대학의 모습을 대학생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트윅’과 ‘페북’으로 대학생세대와 소통할 길이 있다는 것으로도 감사할 뿐입니다.

스펙에 강요당하는 미래

하지만 2011년 대학은 분명 미래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적 상상력은 오간데 없고 대신 소위 ‘취업 스펙’을 쌓아야 하는 시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학점 빼방은 기본’ ‘토익 몇 점에 기본 자격증은 필수’ ‘다양한 자원봉사와 대외활동에 외국어수까지...’ 이제는 일부 동아리까지 스펙 속에 갇혀가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던 동아리도 찾아가보니 취업 스펙에 밀려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학에서 고생고생 공부해가며 석·박사를 따도 ‘청년 백수’가 되어 버린 후배들도 보았습니다. 통계수치만으로도 실업자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2년 연속 8%입니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는 것은 사회의 책임이 가장 큼니다.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면 공약(公約)만 했던 정치집단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등록금 반값’ 공약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대신 학비 마련을 위해 시간당 4,320원인 최저임금도 안 되는 ‘알바’를 하는 대학생 숫자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라는 ‘개론’ 멘트가 개그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시대를 엿볼 수 있는 스펙쌓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3~4학년들을 예게는 큰일 나겠지만, 새내기들에게는 권해 봅니다.



강호진(법학과 9학번)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

어차피 쌓아야 할 스펙이라면 시대를 엿볼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관심 분야가 중요합니다. 외국인과 함께하는 나눔과 연대에 관심이 있다면 <제주평화인권센터>가 있습니다. 사회공헌기업을 꼽은다면 제주에도 사회적 기업들이 있습니다.

생태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제주생태관광>이라는 사회적 기업까지 생겼습다. 로컬푸드운동을 꿈꾸는 예비 사회적기업 <생드르>도 있습니다. 자원봉사가 필요하면 <아름다운 가게>나 진야정 할머니 삶터 보존 운동을 생각해 보세요.

<제주환경운동연합>, <꽃차왕사람들>에 노크하시면 제주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TV와 신문에 나오는 제주의 역사인 4·3을 좀 더 알고 싶다면 <제주4·3연구소>가 있습니다. 장애인문제를 함께하고 싶다면 <제주DPI>와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있습니다. 여성문제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제주여민회>가 있습니다. 통일이 뭐야 궁금하면 <제주통일청년회>나 <청년우리>를 찾으세요. 자치 분야와 행정감시 문제를 고민한다면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주민자치연대> 누리집을 방문하세요.

돈은 되나요? 물론 안 됩니다. 대신 아름답게 사람 사는 세상을 함께 꿈 꿀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사회가 일차적 책임져야

스펙을 강요하는 대학을 벗어나는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와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왜냐구요?

모두다 대학생 일자리를 자신들이 책임지겠다고 대통령으로 도지사로 당선됐으니가요. 대학생이 외쳐야 합니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거리에서 안 되면 ‘트윅’이나 ‘페북’에서 외쳐도 됩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투표장에서라도 평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생도 주권자인 유권자니까요.

보다 절박하고 창의력 있어야

CEO에게 듣는다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주최하는 ‘CEO에게 듣는다’ 강좌가 지난 18일 오후 2시 공과대학 4호관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이날 강좌에는 (주)EMLSI 이승훈 부사장이 ‘취업 100% 하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다음은 강연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이승훈 부사장의 강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이야기 했다. 그는 부시맨과 폭탄주의 관계를 예로 들어 CEO와 취업준비생을 설명했다. “부시맨이 현대 문명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CEO는 당신을 모른다”며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이 바로 취업”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 이 부사장은 같은 일을 해도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많은 사람들이 복사하는 일을 단순히 잡일이라고만 생각한다. 그렇지만 열린 사고를 가지고 복사일을 바라보면 선배들이 어떻게 기획을 준비하고 만드는지 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취업에 있어서 중요 덕목 중 하나로 창의력을 뽑았다. 그러면서 창의력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생활 곳곳에서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택시기사 일을 하더라도 단순히 승객들이 보이는 대로 태우고 다닌다면 가치는 한정적이다. 그렇지만 창의력을 발휘해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를 가야 손님이 많은지 분석하게 되면 이는 누구나 탐내는 정보가 된다”고 말했다.



이승훈
(주)EMLSI 부사장

그는 자신이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고 싶다면 절박함을 가지고 도전해야 한다고 했다. 영어점수나 자격증 등 정형화된 스펙은 지원자의 절박함을 평가하는 수단 중 하나일뿐이라는 것이다.

“정말 들어가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그 절박함을 보여줘야 한다. 한 지원자는 관련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경력을 무시하고 신입사원 모집에 지원서를 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또 무턱대고 스펙을 쌓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위한 개성 있는 스펙을 쌓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틀에 박힌 자기소개서나 영어점수와 자격증이 나열된 이력서가 아닌 자신만의 스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기업에 선택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자신이 기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즘 학생들은 무턱대고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기업, 자신의 꿈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을 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보배 기자

편입생 비애는 옛말... 차별과 외로움에 '울긴 왜 울어'



편입생들의 대학 적응기를 사진으로 담아냈다. 올해 편입한 박재우씨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 산업디자인 학부 MT에 참여했다(두번째 사진). 지난해 편입한 강선익씨(세번째 사진·왼쪽)는 제법 학생들과 친해져서 화기에 애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래픽=고용희 기자

캠퍼스의 '미운오리새끼' 편입생. 재학생 틈으로 어느날 뚝 하고 떨어진 이들의 대학 적응기는 눈물겹다. 화기에 애한 재학생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입 꼬리가 부르르 떨리는 어색한 미소를 띠며 먼저 인사를 건네 보지만 돌아오는 건 '뉘신지?' 하는 이상한 눈빛 뿐. 속스려움과 어색함을 견뎌내고 점차 대학에 녹아 들어가는 이들의 대학 적응기를 공개한다. <편집자>

삼촌이라 불려도 마음은 새내기

박재우(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3)씨는 계원예대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를 졸업한 후 전공과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회의감을 느껴서 다시 제주대 같은 학교로 편입했다. 자신이 정말 하고싶은 일을 하겠다는 꿈이 그를 대학으로 이끌었다. 올해 28살인 그는 학교에서 제일 나이가 많다. 새내기와 8살이나 차이가 난다. 박씨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새내기들은 '응애' 하고 처음 목청을 높인 셈이다. 그는 대학에 편입 후 어린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고 한다. 점심을 같이 먹을 사람도 없어서 친구를 불러내 시내에서 밥을 먹었다. 하지만 계속 혼자 다닐 수는 없는 법. 그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개강파티에 참석했다. 용기를 내서 찾았던 개강파티에는 모두 낯선 얼굴뿐이었다. 얼굴 익히기도 바쁘게 생긴 들도 보도 못한 게임들이 쏟아지고 술잔이 빠르게 비워졌다. 그래도 나름 열심히 대학의 술 문화에 적응해갈 무렵, 카운트다운을 날리는 새내기의 상큼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삼촌!" 충격이었다. 대학물정을 모르는 신입생과 마찬가지로인 새내기라니. 박씨는 '삼촌' 소리에 크게 한방 먹었다. 그러나 그는 이대로 주저앉지 않았다. 학과 모임, MT 등 친구를 사귄 수 있는 곳에는 언제나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다. 노력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박씨는 술자리에서 산업디자인학부 작업실도 한자리 얻어냈다. 덕분에 같은 작업실을 쓰는 친구들과도 친해졌다. 이제 박씨에게 작업실은 거의 집이나 다를 없다. 개인 컴퓨터와 사무용품들을 가져다 놓고 밤을 지새우며 공부한다. 과 동기들과 함께 과제로 새벽을 지새우다가 밤공기 맞으며 담배를 한대 피면... "카~" 박씨는 그제야 자신이 제주대 학생들과 하나가 됐다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 그는 "이제 대학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체험하고 싶다"며 "열심히 공부해서 관광관련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싶 다"고 말했다.

학과 구성원들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

강선익(피아노전공 4)씨는 36살 아기엄마다. 95학번으로 한라대 음악학과에 입학했다가 졸업 후 지금까지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결혼 후 만삭이 됐을 때 그녀는 남편의 권유로 제주대 편입 실기시험을 치렀다.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욕심도 편입을 결심하는데 크게 작용했다. 강씨는 "나이는 이모뻘이지만 음악에는 나이와 모든 것을 초월케하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꽤 오랜 시간동안 공부를 쉬었던 아기엄마가 캠퍼스에 이질감 없이 녹아드는 일이 가능할까? 우려와 달리 강씨는 어느 대학생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위화감 없이 학생들 틈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주위에는 언제나 웃음이 번지고 사람들이 몰려든다.

어려운 전공도 과선배의 도움으로 거뜬

나정혜(독일 4)씨는 서울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던 평범한 20대였다. 그러던 어느날 그녀는 제주도에 살고보고 싶다는 생각에 불쑥 제주대로 편입했다. 본능적인 이끌림이었다. 특히 평소엔 관심이 있던 어문계열, 독일학과로 편입하게 돼 그녀의 가슴은 설렘으로 차올랐다. 하지만 처음 그녀가 맞닥뜨린 것인 커다란 벽이었다. 나씨는 "학생들이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친해서 공감대 형성이 어려웠다"며 "초충고를 같이 나오고 한 지역에서 함께 자라는 무리에 끼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처음 편입했을 때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밥도 혼자 먹고 수업도 혼자 들었다. 옆친대 댈친 격으로 생긴 처음 배워보는 독일어를 3학년부턴 시작하려니 눈앞이 캄캄했다.

처음엔 나이 어린 재학생들로 마음 고달파

학과행사 적극 참여하고 '튜터링' 활용도

어깨 힘빼고 재학생 눈높이 맞춰야

강씨도 처음 편입했을 때에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였다. 육아와 음악학원, 대학생활을 모두 감당해내기 버거웠던 그녀는 MT나 파행사에도 제대로 참여할 수 없었다. 수강신청부터 수업준비까지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편입초기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혼자인 그녀에게 처음 손을 내밀어 준 것은 다름 아닌 교수님들. 강씨는 "특히 박순방 교수님께서 직접 저를 부르셔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찾아오라고 해주셨다"며 "늦깎이 편입생이라 어려움이 많았는데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또 처음보는 사람에게도 인사를 건네는 학과분위기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강씨는 "처음에는 저를 시간강사라고 착각해서 인사를 하는줄 알았다"며 "학생들이 모르는 사람에게도 먼저 인사를 건네줘서 부담없이 친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후 학생들에게 '동네 언니'처럼 친근하게 다가갔다. 학과 동기들도 살갑게 다가오는 그녀를 마다하지 않았다. 강씨는 "처음 편입할때는 두려움이 컸지만 이제 대학생활이 너무 즐겁다"고 말했다.

사람을 사귀는 것과 전공 공부. 두가지 어려움을 한번에 해결해 준 것은 다름아닌 기초교육원의 '튜터링'. 튜터링으로 학과 선배에게 독일어를 배우니 어려웠던 전공도 머리에 쏙 들어왔다. 덩달아 튜터링을 함께하는 선배들과 두터운 인연도 쌓였다. 그녀는 용기를 냈다. 어색함을 떨쳐내고 사람들에게 살갑게 다가서기 시작했다. 학과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동아리도 가입했다. 아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밥을 먹었던 그녀 주위에도 하나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나씨는 "이제 새내기들에게 선배로서 학과생활에 대한 조언까지 할 수 있는 정도가 됐으니 나도 제법 제주대 학생이 다 된 것 같다"며 "해외봉사 등 대학생만이 할 수 있는 대외활동을 많이 하고싶다"고 말했다. 대학의 미운오리새끼 편입생들. 이들이 어느새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는 백조가 됐다. 재학생들의 따뜻한 관심이 없었더라면 이들도 대학에 잘 적응하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은 편입생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보는 건 어떻게? 고용희 기자

늘면서 영어하니 영어가 되네?

외국어교육원, 잉글리시 카페 프로그램 사용자 위주로 개편



외국어교육원(원장 이기석) 3층에 있는 English Cafe의 프로그램이 새롭게 편성됐다. English Cafe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방문해 영어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학습시설이다. 카페 내에서는 영어로만 말할 수 있고, 영어방송 시청과 자료 열람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토플 영어말하기 학습인 Tony의 TOEFL Speaking은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Ryan의 Current events는 매주 화·금요일 오전 9시에, 제인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을 낭독하는 Louisa의 Reading club은 매주 수·금요일 낮 12시에 시작한다. 보드게임을 할 수 있는 Evan의 Conversation&Games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1시에 열린다.

그러나 영어로만 말해야 한다는, 알파벳만 봐도 소름이 돋는다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너무 벽이 높지 않을까.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영어회화라운 '하와이 아임파인 땡큐' 밖에 모르는 기자가 죽어보잔 심정으로 직접 현장취재에 나섰다. 카페에 들어서니 매력적인 아시아 여성이 반겨준다. 원어인 도우미인 필리핀 유학생 Rosalie Sombilla 양이다. "한국 학생들은 쓰기, 듣기, 읽기는 잘 하지만 말하기엔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영어를 즐기면서 말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상냥한 Rosalie 덕분에 인터뷰 말미에는 기자도 영어로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잊을 수 있었다. English Cafe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원어미인 있는 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다. 김은실 수습기자

중국

- 북경/만리장성 4일
제주-북경-천안문광장-자금성-만리장성-이화원
- 상해/항주/소주 4일
제주-상해-소주출정원-항주서호-황포강유람선-외탄야경
- 상해/장가계 5일
제주-상해-장가계-천자산-보봉호-황룡동굴-백룡엘리베이터

일본

- 동경/후지산 4일
제주-나리타-외쿠타니계곡-하코네유람선-긴자거리-신주구거리
- 오사카/나라/코토 4일
제주-오사카-동대사-청수사-오사카성-고베

대만

4일

제주-부산-타이베이-화롄-태각로-아류-양명산은천-국립고궁박물관

홍콩

4일

제주-인천-홍콩-해당공원-리펄스베이-빅토리아산정

싱가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5일

제주-인천-싱가폴-버탐섬-조호바루-센토사섬

필리핀

5일

마닐라

제주-인천-마닐라-팍상한폭포-따알화산-히든벨리

인도

8일

인도/젠지스

제주-인천-델리-젠지스강-황금사원-타지마할

베트남

5일

베트남북부/하롱베이

제주-인천-하노이-하롱베이선상유람(세계문화유산)-땀꼭

호주

6일

시드니

미주

- 미동부 8일
- 미서부
- 케나다

유럽

- 서유럽 8일
- 동유럽
- 북유럽

하너투어전문 판매대리점 JR투어 일정 및 견적문의 담당: 문인관 [일어일문학과출업] TEL. 748-2002 H.P: 010-4693-2394 제이알투어(주) 제주시 연동 2312-1, 국외여행업등록 94호, 제주도의 토종기업, 34년 전통 제주렌트카 자매회사, 해외여행, 국내여행, 렌트카를 포함한 광범위한 영업